

IBM-애플社 간의 제휴와 그 충격

지난 7월 3일 뉴욕 주식 시장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웨어社의 주식이 급락했다. 전날에 비하여 주당 4달러까지 값이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주가 급락의 원인은 그 날 아침 IBM-애플社 간의 광범위한 업무 제휴가 발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휴는 퍼스널 컴퓨터(PC)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던 두 회사 간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더구나 그것도 한쪽은 컴퓨터 산업의 대명사격인 東部の 기성 기업이며, 다른 한쪽은 실리콘 밸리 출신의 神話的 신흥 기업이므로 이들이 서로 손을 잡은 것은 더욱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10년 전 IBM社는 PC사업에 참여하면서 컴퓨터의 기본 소프트웨어(OS)의 개발을 위탁한 작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社와 제휴하고 나섰다. 그 간 이 작은 회사(마이크로 소프트웨어)는 巨人 IBM의 그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로 착실하게 성장하여 PC의 두 大家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작년 시장에 내놓은 「윈도우즈」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이었다. 이로 인하여 IBM은 2세대 기본 소프트웨어 「OS/2」의 개발 전략을 수정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애플社는 畫像 처리를 내세우고 있는 「매킨토시」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

애플社는 차세대 성장 분야로 전망되는 멀티미디어 PC(문서, 동작 화상, 음성 등을 동시에 처리)에서 앞서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세우고, 한편 IBM은 RISC(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 반도체 기술과 칩(chip)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서로 상부 상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두 회사는 공동 출자에 의해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고, 랩탑(Lap Top)에서 대형 컴퓨터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적용이 가능한 “오브젝트 指向 SW”를 개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SW개발의 시간과 인원 및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어 컴퓨터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컴퓨터 업계에서의 주도권은 결국 소프트웨어(OS)와 연산 처리 장치(CPU)의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두 회사의 제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핵심 기술이 없는 컴퓨터 제조 업체가 단순한 箱子(부가 가치가 적고 경쟁력이 불리한) 제조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내다볼 때 두 회사의 기술 제휴는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외톨이가 된 듯한 마이크로 소프트웨어社는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시작하였고, 지난 5월에는 일본 기업과 Multimedia PC의 공동 개발을 제외한 바 있으며, 특히 일본 기업과의 제휴 가능성이 관심의 초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 집약 산업의 기업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합 집산을 거듭하여 열키고 설켜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IBM-Apple社 간의 結緣은 이러한 기술에 바탕을 둔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의 좋은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